

NOW

일본

산업리포트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아프리카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간 계층의 확대

- 2022년 발표된 UN의 세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11월 8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 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54개국의 총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인도와 비슷한 규모임.
- 2030년 아프리카 인구는 약 16억 9천만 명으로 세계인구 5명 중 1명, 2050년에는 약 24억 6천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4명 중 1명이 아프리카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의 인구성장이 두드러짐.
- 2023년 5월에 발표된 아프리카개발은행 그룹(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의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1.7%를 기록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1년 4.8%, 2022년 3.8%에서 2023년 4.0%, 2024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아프리카의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남부 1.6%, 서부 3.9%에 비해, 북부 4.6%, 중부 4.9%, 동부 5.1% 등 상대적으로 중동부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아프리카의 소득 계층별 인구 비중에서 중간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곤 계층(1일 소득 2달러 미만) 비중은 2020년 59.96%에서 2050년 52.02%로 감소. 중간 계층(1일 소득 2~20달러) 비중은 2020년 33.44%에서 2050년에는 39.91%로 증가. 상위 계층(1일 소득 20달러 초과) 비중은 2020년 6.60%에서 2050년에는 8.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의 출범으로 WTO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 2018년 3월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가맹국 중 44개국이 AfCFTA 설립 협정에 서명하고 2019년 5월에 발효, 정식 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작됨.
- 2023년 3월 시점에 55개 AU 가맹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고 46개국이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상태
- AfCFTA 협상은 현재진행형인데 1단계 협상(Phase I), 2단계 협상(Phase II), 3단계 협상(Phase III)의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됨.
-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 내용에 대한 협의, 2단계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에 대한 협의, 3단계 협상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정서 등이 다루어질 예정임.
- 2023년 2월 개최된 제36차 A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의 주된 내용인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 초안이 승인되면서 현재 3단계 협상만이 남은 상황

일본의 대(對)아프리카 전략의 중심축인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 일본 정부의 주도로 1993년 제1차 회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실시된 TICAD는 아프리카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국제 포럼의 성격을 가짐.
- 아프리카 각국뿐 아니라 국제개발 관련 국제기관, 아시아 각국, 민간 기업, 시민사회단체도 참가하는데, 2013년 제5차 회의 이후로는 3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표1>).
- 2022년 8월 튀니지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 아프리카에서는 약 20명의 정부수반급이 참가하였는데, 온라인으로 참가한 기시다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청년층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는 앞으로 다이내믹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며,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라고 연설했다.
- 일본은 인재에 대한 투자와 질 높은 성장을 축으로 하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해 3년간 민관 총액 3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여 ①그린투자, ②투자촉진, ③개발금융, ④보건·공중위생, ⑤인재육성, ⑥지역 안정화, ⑦식료안전보장 부문에 노력할 것을 약속함.

- 제8차 회의를 전후하여 참가한 일본 기업들과 단체들은 아프리카의 파트너 기업 혹은 단체들과 총 92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토추상사, 마루베니, 미쓰비시상사, 도요타통상 등 상사가 많은 점이 특징임.

〈표1〉 역내 TICAD 주요 내용과 일본의 對아프리카 지원 표명액

제1차 TICAD (1993.10.도쿄)		제2차 TICAD (1998.10.도쿄)	
주체	·일본,UN,GCA(아프리카개발 국제NGO)	·일본,UN,UNDP,GCA	
포인트	·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對아프리카지원의 필요성 · 아프리카의 자조 노력의 중요성 · 아시아 경험을 바탕으로 남남(南南)협력추진	· 기본원칙으로 오너쉽과 파트너쉽 명기 · 의제로 [사회개발], [경제개발], [개발 기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치목표 설정	
일본의 지원 표명액	경제개혁과 수도공급 확충등에 3년간 9억~10억달러 무상자금협력	기초생활분야에서 5년간 7억5천만 달러 무상자금협력	
제3차 TICAD (2003.9 ~ 10.도쿄)		제4차 TICAD (2008.5.요코하마)	
주체	·일본,UN,UNDP,GCA,IBRD	·일본,UN,UNDP,IBRD	
포인트	· 아프리카개발 신평트너쉽(NEPAD)지원 중시 · 인간의 안전보장 중시 · 일본의 대 아프리카 지원 3대 방침(인간중심개발,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삭감, 평화정착) 표명	· 대규모 광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개발에 역점 ·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문제 관심 고조 · 처음으로 UN안보리 개혁 언급	
일본의 지원 표명액	5년간 10억달러 무상자금협력, 30억달러규모 기존 채권 포기	5년간 對아프리카ODA 2배 증가, 인프라에 대해 최대 40억달러 엔차관 공여	
제5차 TICAD (2013.6.요코하마)		제6차 TICAD (2016.8.케냐 나이로비)	
주체	·일본,UN,AUC,UNDP,IBRD	·일본,UN,AUC,UNDP,IBRD	
포인트	· 민간주도 성장 촉진을 통한 개발의 경제 기반 강화 · 민간과의 대화 세션 개최와 UHC 추진 표명 · 아프리카 청년층 산업인재육성이니시어티브(ABE이니시어티브) 발표	·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개최 ·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 설립 표명 · 기조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이니시어티브 발표(아베수상)	
일본의 지원 표명액	5년간 민관 최대 320억달러(ODA 140억달러 포함)	민관 총 300억달러 투자	
제7차 TICAD (2019.8.요코하마)		제8차 TICAD (2022.8.튀니지 튀니스)	
주체	·일본,UN,AUC,UNDP,IBRD	·일본,UN,AUC,UNDP,IBRD	
포인트	· 비즈니스의 주류화 · [아프리카건강구상] 설립 표명 · [아프리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어프로치(NASPA)] 제창 · [2국간 비즈니스환경 개선위원회] 발족	· 건전한 개발금융의 중요성 · [아프리카 녹색 성장 이니시어티브] 설립 표명 ·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산업인재 이니시어티브] 설립 표명	
일본의 지원 표명액	200억 달러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	3년간 민관 총 300억달러 자금 투입	

출처: 金子七絵「TICADプロセスと日本のアフリカ開発協力」를 토대로 작성

일본-아프리카 기업의 협력 및 일본 기업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일본-아프리카 민관 경제포럼(JAfeF: Japan Africa Public-Private Economic Forum)

- 2016년 제6차 TICAD에서 당시 아베 총리가 JAfeF 창설을 표명한 후, 일본 정부 주도로 아프리카 각국 및 JETRO가 공동 개최
 - 제1차 포럼은 남아공에서, 제2차 포럼은 2021년 12월에 온라인 분과 회의를 거쳐 2022년 5월에 케냐에서 개최
 - 2022년 5월 제2차 포럼에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8명의 각료급 인사 등을 포함해 16개국에서 총 250명이 참가
 - 제2차 포럼에서 일본과 아프리카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경제산업성 시책으로서 ①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기업의 제휴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형 비즈니스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하는 J-Partnership, ②일본 기업과 아프리카 스타트업 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 J-Bridge의 아프리카 거점 설치, ③산업인재 육성 강화, ④아프리카 금융기관과의 제휴 강화 등이 포함됨.

남아공, 케냐, 이집트에 편중된 일본의 對아프리카 경제 관계

-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액에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와 남아공, 케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표2>)
 -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 운송기기가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입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광물성 연료와 철광석이 많고, 어패류나 커피와 같은 식료품이 주된 품목임.
-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남아공과 케냐에 100개 사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모로코, 가나, 나이지리아에 진출한 기업도 50개 사 이상임.
 - 2050년에 세계인구 상위 10개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콩고의 경우, 향후 시장 확대를 기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2〉 아프리카 주요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관계 현황

모로코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195	314	▼119	13억엔
2019	199	269	▼70	22억엔
2020	224	299	▼75	▼2억엔
2021	227	357	▼130	▼14억엔
2022	237	464	▼227	▼6억엔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43.5%), 전기기기(20.2%), 일반기계(14.3%)

*주요 수입품(2022): 어패류(34.7%), 화학제품(33.3%), 의류·동부속품(10.6%)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 통계): 67, 재류일본인(2022): 352명

*일본과의 주요협정: 일본-모로코 투자협정·조세조약(2022)

가나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152	125	27	2억엔
2019	111	122	▼11	0억엔
2020	138	130	8	3억엔
2021	182	133	49	1억엔
2022	109	150	▼41	9억엔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45.2%), 고무제품(16.6%), 일반기계(15.2%)

*주요 수입품(2022): 식료품(74.9%), 비철금속(16.1%)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57, 재류일본인: 272명

*일본과의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62)

이집트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994	270	724	4억엔
2019	911	140	771	34억엔
2020	970	310	660	11억엔
2021	1,093	319	774	15억엔
2022	789	370	419	24억엔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30.1%), 일반기계(33.8%), 원료별제품(8.9%)

*주요 수입품(2022): 광물성연료(80.0%), 식료품(8.2%)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통계): 51, 재류일본인(2022): 764명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나이지리아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328	922	▼594	6억엔
2019	392	510	▼118	4억엔
2020	285	690	▼405	5억엔
2021	287	759	▼472	7억엔
2022	249	1,250	▼1,001	45억엔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35.1%), 원료품(16.7%), 일반기계(16.0%)

*주요 수입품(2022): 액화천연가스(72.6%), 비철금속(14.7%), 원료품(12.5%)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통계): 51, 재류일본인:156명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에티오피아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2018	47	105	▼58
2019	85	137	▼52
2020	84	107	▼23
2021	71	89	▼18
2022	65	161	▼96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60.9%), 일반기계(17.5%), 철강(4.3%)

*주요 수입품(2022): 식료품(커피, 깨 등)(87.7%), 원료품(11.4%)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통계): 13, 재류일본인: 189명

모잠비크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2018	123	176	▼53
2019	184	213	▼29
2020	140	57	83
2021	129	143	▼14
2022	123	126	▼3

*주요 수출품(2022): 자동차(38.4%),철강(11.9%)

*주요 수입품(2022): 석탄(50.0%), 비철금속광(21.7%)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통계): 27, 재류일본인(2022): 141명

케냐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898	69	829	9억엔
2019	854	72	782	12억엔
2020	719	68	651	9억엔
2021	1,027	77	950	9억엔
2022	971	68	903	9억엔

*주요 수출품(2022): 자동차(57.2%), 철강(29.1%), 일반기계(2.0%)

*주요 수입품(2022): 원료품(56.8%), 식료품(커피, 차 등)(36.5%)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1년, 외무성통계): 103, 재류일본인(2022): 681명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2,519	5,141	▼2,622	1,613억엔
2019	2,414	5,130	▼2,716	▼1,425억엔
2020	1,667	5,759	▼4,092	▼4,837억엔
2021	2,363	10,099	▼7,736	452억엔
2022	2,375	10,098	▼7,723	895억엔

*주요 수출품(2022): 운송기기(50.9%), 일반기계(17.7%), 원료별제품(12.3%)

*주요 수입품(2022): 비철금속(71.3%), 철광석(4.8%), 자동차(5.8%)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통계):268, 재류일본인:1,033명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출처: JETRO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 작성

□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와 일본의 진출전략

- 新아프리카 쟁탈전 시대에 중국의 독주가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에 시작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은 지금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함.
-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은 2000년 이후 프랑스, 미국, 독일을 넘어서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기준 아프리카의 對중국 수입액은 1,100억 달러인데, 프랑스, 미국, 독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은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에 전기기구, 기계류, 운송기구를 수출하고, 남아공, 앙골라, 콩고에서 광물성 연료, 철광석, 귀금속류를 수입하는 구조
- 아프리카 국가들은 對중국 무역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시장 개방을 더욱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아프리카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중국-아프리카의 무역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對아프리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 등 운송기기이며, 일반기계와 철강 수출액은 최근 정체됨.
 -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 비해 일본의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향후 對아프리카 무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
- 일본의 對아프리카 무역의 특징은 남아공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
 - 향후 빠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시장 확대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일본 기업의 對아프리카 진출 현황과 과제

-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한 231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
 - ①약 80%의 기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물류비용과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흑자기업은 전체의 48.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②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54.5%인데, 특히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할 만함.

③투자환경 측면에서는 시장의 성장성에서 매력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반면, 정치·사회 정세의 불안정, 법 제도의 미비, 환율변동 같은 리스크 요인 등은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임.

- 동(同) 조사에 응답한 일본 기업의 진출국을 보면, 남아공 59개 사, 케냐 50개 사, 이집트 33개 사 모로코 31개 사, 나이지리아 26개 사, 가나 14개 사, 모잠비크 10개 사의 순임.
-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 흑자기업의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36.5%)이었으나, 2021년에 49.2%, 2022년에 48.9%로 증가함.
- 2022년 기준 제조업의 57.4%가 흑자기업인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흑자기업 비율은 이보다 낮은 45.8%임.
- 2022년 기준 흑자기업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국가는 에티오피아(62.5%), 남아공(60.0%), 케냐(52.6%), 모로코(52.4%), 이집트(51.7%) 순임.
-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년보다 9.6%포인트 증가한 48.4%를 차지해 수익성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에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량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 코로나 회복, 판로 확대에 의한 매출 증가, 현지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 등을 꼽은 기업이 많음.
- 반면 2023년에 영업이익 악화가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류비용의 상승,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비용의 상승, 환율변동을 꼽은 기업이 많음.
- 전체 기업의 54.6%가 아프리카에서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보다 5.9%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 가나, 에티오피아를 꼽은 기업이 많아서, 이들 국가에서의 향후 사업 확대가 예상됨.
-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가 지적됨.

-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향후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
- 5년 전에 비해 현재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9%이며, 지금보다 5년 후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7.7%에 이름.
-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을 설치한 이유로는 시장의 장래성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음(81.3%)<표3>.

<표3> 아프리카에 기업 거점 설치의 이유

(복수응답)	아프리카 전체 (N=230)	남아공 (N=46)	케냐 (N=38)	이집트 (N=29)	모로코 (N=22)	나이지리아 (N=19)	가나 (N=12)
시장규모	38.7%	34.8%	47.4%	48.3%	27.3%	42.1%	33.3%
시장의 장래성	81.3%	78.3%	86.8%	72.4%	77.3%	100.0%	91.7%
현지 정부의 요청	3.5%	0.0%	7.9%	0.0%	4.5%	0.0%	0.0%
천연자원	11.7%	19.6%	5.3%	6.9%	0.0%	5.3%	16.7%
일본 정부의 요청	8.3%	2.2%	15.8%	3.4%	4.5%	5.3%	8.3%
수익성	15.7%	17.4%	15.8%	13.8%	13.6%	10.5%	16.7%
거래처의 요청	12.6%	23.9%	7.9%	10.3%	18.2%	10.5%	8.3%
기술탐색	3.0%	0.0%	0.0%	3.4%	4.5%	10.5%	0.0%
제조거점으로서의 우위성	10.4%	10.9%	5.3%	17.2%	31.8%	10.5%	0.0%
기타	7.8%	4.3%	7.9%	13.8%	0.0%	0.0%	16.7%

출처: JETRO(2022) 「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アフリカ編」를 기초로 필자 작성

- 아프리카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영어 사용 아프리카 국가들)이 거론됨.
 - 전체 67.9%(복수응답)가 진출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매력 요인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 가나, 케냐가 높은 평가를 받음.
 -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장벽은 남아공, 케냐, 가나가 높은 평가를 받음.
- 아프리카 투자환경의 과제로는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 재정·금융·환율 문제,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 불안정한 인프라가 거론됨.

- 미비한 규제와 법제도 및 운용은 행정 수속의 번잡성, 재정·금융·환율 문제는 불안정한 환율변동,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는 치안 불안과 정치적 리스크, 불안정한 인프라는 전력 부족이 각각 지적됨.
- 아프리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는 유럽 기업(25.9%)이 가장 많고, 중국 기업(19.3%), 일본 기업(17.5%), 현지 기업(12.3%)의 순임.

일본 기업이 주목하는 아프리카 국가 및 유망 비즈니스 분야

- 아프리카에서 일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국가로 케냐(42.8%), 남아공(30.4%), 나이지리아(28.9%)가 상위를 차지하며, 최근 가나가 급상승<표4>
- 2018년부터 케냐, 남아공, 나이지리아는 주목 국가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가나에 주목하고 있다는 기업들이 2018년에는 16.3%, 2020년에는 19.5%, 2022년에는 23.2%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 중 4위로 올라섬.
- 케냐의 특징은 스타트업 기업과 인프라 수요가 많고,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허브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현지 정부의 수출 장려책과 일본 ODA투자 사업이 활발함.
- 남아공의 특징은 아프리카의 경제·제조·수출의 거점이며, 자동차산업과 관련 시장이 크며, 광물 자원이 풍부함. 향후 암모니아나 수소 등 탈(脫)탄소·그린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나이지리아의 특징은 거대한 청년층 중심의 인구와 시장임. 자원·에너지, 농업, 농기구,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가나의 특징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 정세, 경제 규모의 확대, 에너지 개발, 자동차 산업, 카카오 제품, 서부 아프리카 거점으로서의 후보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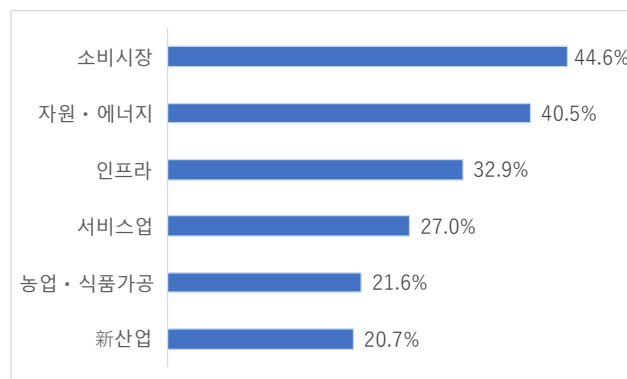
〈표4〉 향후 아프리카에서 주목하는 국가 (복수응답)

2018년 주목 국가	(N=270) %	2020년 주목 국가	(N=282) %	2022년 주목 국가	(N=194) %
케냐	39.6%	케냐	35.1%	케냐	42.8%
나이지리아	34.4%	남아공	33.0%	남아공	30.4%
남아공	32.5%	나이지리아	29.4%	나이지리아	28.9%
모잠비크	23.7%	에티오피아	21.3%	가나	23.2%
에티오피아	22.2%	가나	19.5%	탄자니아	22.2%
탄자니아	19.3%	모로코	19.1%	에티오피아	20.6%
이집트	16.7%	모잠비크	17.0%	모로코	18.6%
모로코	16.3%	코트디부아르	16.3%	코트디부아르	18.6%
가나	16.3%	이집트	16.0%	이집트	17.0%
짐바브웨	15.9%	탄자니아	15.6%	모잠비크	15.5%

출처: 〈표3〉과 동일

-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고(44.6%), 그다음이 자원·에너지, 인프라, 서비스업의 순임.

〈표5〉 아프리카 지역 유망 비즈니스 분야 (복수응답)



[소비시장] 세부분야		[자원·에너지] 세부분야		[인프라] 세부분야		[서비스업] 세부분야	
식품	58.9%	재생에너지(태양광)	56.5%	전력	64.1%	의료·보건	47.3%
운송기기 (자동차, 이륜차)	51.1%	수소	40.1%	도로	40.6%	물류·해운	38.2%
생활용품	41.1%	연료암모니아	37.6%	수도	39.1%	정보서비스	30.9%
유아·어린이	18.9%	천연가스	36.5%	항만	37.5%	교육	30.9%
여성	17.8%	재생에너지(풍력)	32.9%	도시개발	32.8%	금융·보험	30.9%

출처: 〈표3〉과 동일

- 유망 비즈니스 분야로 소비시장을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구 증가를 예상한 식품, 운송기구, 생활용품, 유아·어린이, 여성 대상 분야를 꼽음.
- 인프라를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전력이 가장 많고(64.1%), 그다음 도로, 수도, 항만, 도시개발을 꼽음.
- 자원·에너지를 꼽은 기업들은 태양광이 가장 많고(56.5%), 그다음 수소, 암모니아, 천연가스, 풍력을 꼽음.
- 서비스업을 꼽은 기업들은 의료·보건의 가장 많은데(47.3%), 이는 비만 인구가 높은 점과 위생 문제로 인한 질병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식(日食) 관련 분야: 일본에서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식품 중 약 90%가 어패류임.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왕성한 구매력에 의해 일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관련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함.
- 그린 에너지 분야: 아프리카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있어서 토지 및 기후 조건이 유리함. 아프리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은 수력이 대부분이지만 2010년경부터 풍력, 태양력, 태양열, 지열에 의한 발전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보건 분야: 경제성장으로 서구식 식생활이 보급되면서 당뇨병과 같은 질병이 급증하고 있음. 이집트, 모로코, 남아공에서는 비만(BMI 25이상) 인구 비중이 50%를 넘고,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증가할 경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참고문헌〉

- 直江敦彦「日本とアフリカのビジネスの現状」JETRO, 2021.8
- 金子七絵「TICADプロセスと日本のアフリカ開発協力」参議院, 2022.11
- JETRO「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アフリカ編」JETRO, 2022.12
- 佐藤丈治「人口増加にみるアフリカ市場の可能性と課題」JETRO, 2022.12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2/b17b51af306ca379.html>)
- 佐藤丈治「新アフリカ争奪戦と日本のアフリカビジネスの可能性」JETRO, 2023.3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3/b8710e51d366751b.html>)
- 김경하「자주적 경제 통합을 향한 아프리카의 여정: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추진 배경과 과제」서울대아시아연구소. 『Asian Regional Review DiverseAsia』 Vol.6 No.2. 2023.
- The Economist. “The new scramble for Africa” , 2019.3.7
- AfDB Group. *African Economic Outlook 2023*. AfDB, 2023.5
(<https://www.afdb.org/en/documents/african-economic-outlook-2023>)